

4년제 대졸자의 취업사교육 현황 및 첫 일자리 성과

- 4년제 대졸자 중 71.4%가 취업사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수준임.
- 4년제 대졸자 중 13.9%가 1,343만 원을 들어 8.3개월간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14.0%는 직업교육훈련에 평균 200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 4년제 대졸자의 자격증 취득 비율은 56.4%이고, 13개월의 준비기간과 약 7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됨. 4년제 대졸자의 17.8%는 공무원 및 전문자격시험 준비에 19개월 간 월평균 44만 원을 투자함.
- 취업사교육을 받은 경우 첫 일자리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일부 취업사교육 유형은 월평균 임금이나 정규직 취업, 종사상 지위별 비율에 별다른 효과가 없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청년층의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상당한 수준임.

- 우리나라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취업사교육에 참여함.
 - 대학생들은 대학 교육 외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연수, 직업교육훈련, 공무원 등의 시험 준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졸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취업사교육이 투자한 비용과 시간 대비 첫 일자리 취업 성과에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에서는 4년제 대졸자의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 투자기간 및 총비용 현황을 살펴보고,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첫 일자리 취업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5년 1차년도 조사자료
 - 2014년 8월 및 2015년 2월 졸업생 중 4년제 대학 졸업생 12,7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를 적용함.
- 취업사교육의 정의: 대학 교육과정 이외에 취업 준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는 활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학연수,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공무원 및 전문자격시험 준비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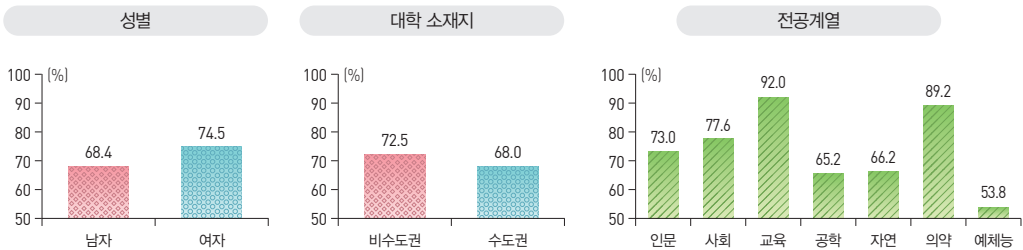
02 취업사교육 현황

4년제 대학 졸업생의 71.4%가 취업사교육을 받음.

- 졸업자 특성별로 취업사교육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74.5%)가 남자(68.4%)보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72.5%)가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68.0%)보다 높음.



- 전공별로는 인문계열(73.0%) 및 사회계열(77.6%) 졸업자가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공학계열(65.2%) 및 자연계열(66.2%)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적으로 취업 경로가 다르고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는 교육계열(92.0%)과 의약계열(89.2%)은 예외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음.



[그림 1]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개인특성별 취업사교육 참여 비율

각주

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대학 입학 후 어학연수 경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단순한 해외여행 및 교환학생 경험, 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외교환파견 근무, 해외직무 연수 등은 제외함.

각주

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대학 입학 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경험을 파악하고 있으며, 직장연수, 학원수강 등이 포함됨. 통신 강좌와 교양 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되지만 자신의 교양이나 평생학습차원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정규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는 제외함.

4년제 대졸자의 13.9%가 약 1,343만 원을 들여 평균 8.3개월의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¹⁾

- 남자(12.3%)보다는 여자(15.6%)가 어학연수 경험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연수기간이 짧고 총비용도 적음.
-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13.0%)가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16.9%)보다 어학연수 경험 비율이 낮으나, 기간은 근소하게 긴 것으로 나타남.
-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의 경우 어학연수 경험 비율이 25.4%, 기간은 9개월로 가장 높고 긴 반면, 예체능계열은 어학연수 경험 비율이 7.4% 정도에 불과하지만 총비용은 1,680만 원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4년제 대졸자 중 14.0%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고, 이수시간은 평균 200시간,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된 본인부담 비용은 85만 원임.²⁾

- 여자(13.4%)보다 남자(14.5%)의 참여 비율이 다소 높고, 시간 및 비용 또한 각각 238시간, 87만 원으로 여자(159시간, 84만 원)보다 높은 편임.
- 전공별로는 공학계열의 경우 참여 비율이 16.8%인 반면,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10% 수준에 불과하여 전공별 차이가 존재함.
- 직업교육훈련의 본인부담 비용은 교육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각각 120만 원과 118만 원으로, 평균 수준(85만 원)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 취업사교육 유형별 경험 여부 · 기간 · 비용: 어학연수 및 직업교육훈련

(단위: %, 개월, 시간, 만 원)

구분		어학연수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기간	총비용	참여 비율	시간	총비용
전체		13.9	8.3	1,343	14.0	200	85
성별	남자	12.3	8.8	1,426	14.5	238	87
	여자	15.6	7.9	1,275	13.4	159	84
대학 소재지	비수도권	13.0	8.3	1,316	13.9	207	90
	수도권	16.9	8.2	1,406	14.2	181	67
전공계열	인문	25.4	9.0	1,181	13.5	193	85
	사회	16.6	8.5	1,462	14.3	153	79
	교육	7.8	7.1	1,172	14.1	124	120
	공학	12.0	8.2	1,319	16.8	296	84
	자연	10.8	7.5	1,292	10.8	129	67
	의약	8.7	6.5	1,067	14.7	132	62
	예체능	7.4	7.6	1,680	10.4	223	118

| 각주 |

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격증 유형은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으로 구분함.

| 각주 |

4)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시험 준비' 항목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교원임용시험 등 공무원 및 공단(사) 시험과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시험과 취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4년제 대졸자 중 56.4%가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준비기간은 평균 13개월, 준비비용은 75만 3천 원으로 나타남.³⁾

- 남자(53.2%)보다는 여자의 자격증 취득 비율이 59.8%로 높고 준비기간도 14.4개월로 길지만,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은 남자(78만 7천 원)가 여자(72만 원)보다 높음.
-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가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보다 자격증 취득 비율이 높고 준비기간도 길지만, 준비비용은 67만 9천 원에 불과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103만 3천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전공별로는 자격증 취득 비율이 교육계열 79.3%, 의약계열 85.6%로 높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준비기간 및 비용 또한 타 전공에 비해 높음.

4년제 대졸자 중 17.8%가 공무원 및 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기간은 19개월, 준비비용은 월평균 44만 원임.⁴⁾

- 남자(17.2%)보다는 여자(18.5%)의 시험 준비 경험 비율이 높지만, 준비기간은 남자(20.6개월)가 여자(17.4개월)보다 길고 월평균 비용 또한 45만 9천 원으로 여자 42만 2천 원보다 많음.
-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시험 준비 경험, 기간 및 비용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교원임용시험이 거의 필수인 교육계열의 경우 시험 준비 경험 비율이 58.6%로 가장 높음. 사회계열에서도 시험 준비 경험 비율이 25.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2〉 취업사교육 유형별 경험 여부 · 기간 · 비용: 자격증 취득 및 시험 준비

(단위: %, 개월,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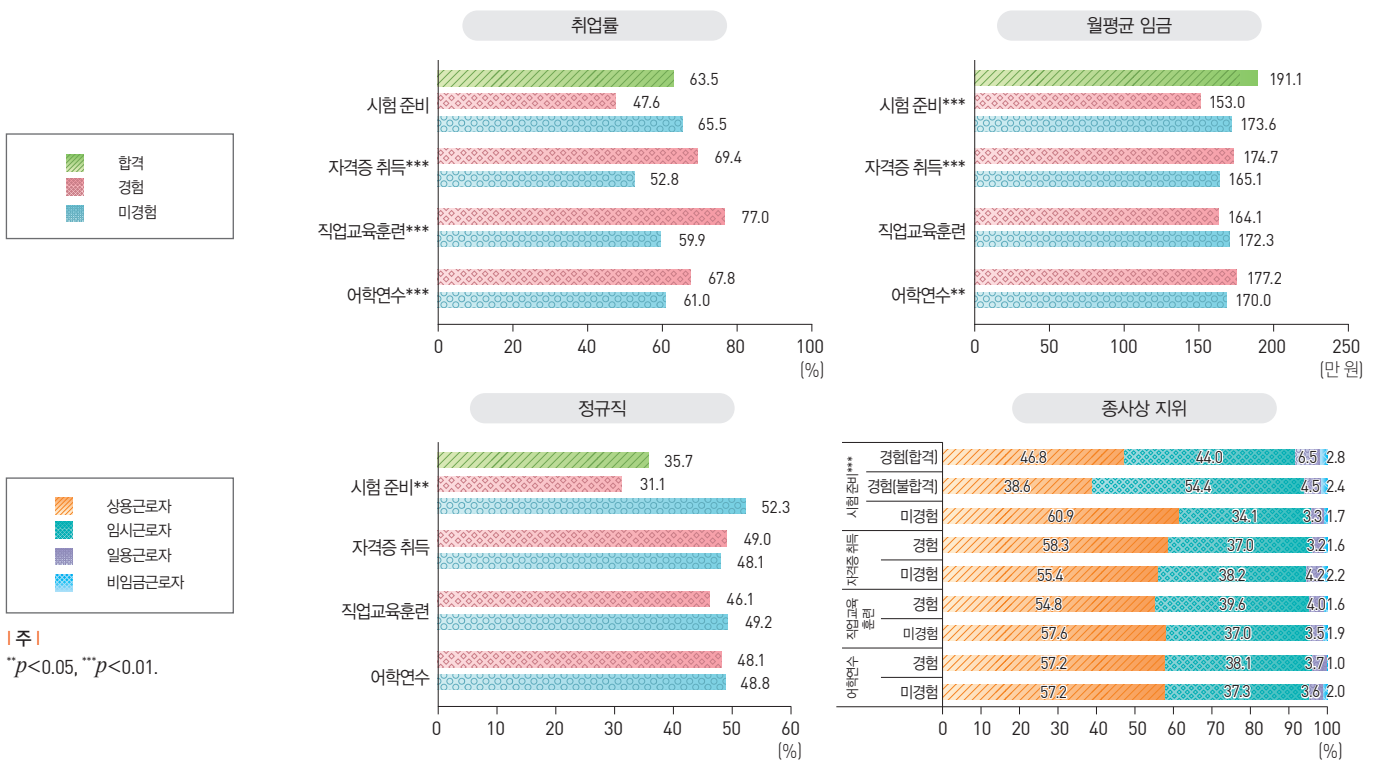
구분		자격증			공무원 및 전문자격시험		
		취득 비율	준비기간	총비용	준비 경험 비율	준비기간	월평균 비용
전체		56.4	13.0	75.3	17.8	19.0	44.0
성별	남자	53.2	11.4	78.7	17.2	20.6	45.9
	여자	59.8	14.4	72.0	18.5	17.4	42.2
대학 소재지	비수도권	59.4	13.1	67.9	16.8	18.1	41.8
	수도권	47.4	12.5	103.3	21.2	21.2	49.4
전공계열	인문	49.4	10.9	50.7	17.2	17.6	42.6
	사회	59.0	10.6	68.2	25.5	21.5	49.9
	교육	79.3	34.9	140.5	58.6	21.6	41.6
	공학	52.1	7.5	47.8	10.4	15.1	36.4
	자연	54.7	9.9	47.9	14.3	15.7	41.8
	의약	85.6	24.2	188.7	11.0	11.3	32.0
	예체능	43.0	11.6	85.7	5.1	15.2	41.1

03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의 노동시장 성과

취업사교육은 첫 일자리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첫 일자리 질로 대변되는 월평균 임금, 정규직 여부, 종사상 지위별 비율은 취업사교육 유형과는 관계가 없거나 상이하게 나타남.

-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경우 첫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어학연수를 다녀 온 경우 67.8%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의 취업률도 77.0%로 높은 수준임.
 - 자격증 취득의 경우 첫 일자리 취업률은 69.4%로, 미취득자(52.8%)에 비해 약 16%p 높음.
 - 공무원 등의 시험 준비 경험자 중 합격자와 미경험자의 취업률은 비슷하게 나타나,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어학연수 경험 및 자격증 취득의 경우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첫 일자리에에서의 월평균 임금은 어학연수 경험자(177만 2천 원)가 미경험자(170만 원)에 비해 약 7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174만 7천 원)의 경우 미취득자(165만 1천 원)보다 9만 원 이상 높음.
 - 시험 준비자 중 합격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191만 1천 원으로 다른 취업사교육 참여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시험 준비를 제외한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는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험 준비 경험이 없는 경우 정규직 비율은 52.3%로 높게 나타나고, 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 합격자의 정규직 비율은 35.7%로 불합격자(31.1%)에 비해 4%p 높은 수준임.
- 종사상 지위별 비율 또한 공무원 및 전문자격시험 준비를 제외하고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음.
 - 시험 준비 미경험자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60.9%로 가장 높고, 시험 준비를 하였더라도 불합격한 경우 임시 근로자 비율이 54.4%로 미경험자(34.1%)나 합격자(4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사교육 유형별 첫 일자리 노동시장 성과

04 시사점

-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사교육에 대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 투자가 상당한 수준이지만, 노동시장 성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취업사교육을 받은 경우 첫 일자리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월평균 임금 수준이나 정규직 취업에서는 일부 유형의 취업사교육 경험 여부가 별 효과를 보이지 않음.
- 취업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채용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생들의 취업 목표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질적 수준과 양적 수준을 개선하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함.

백 원 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